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DEMELZA AND THE SPECTRE DETECTORS

가제 : 드메즐라와 유령 수호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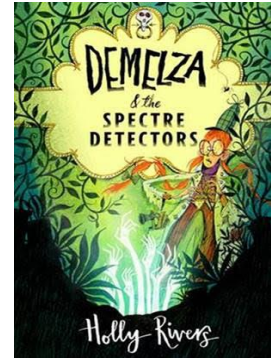
저자 : Holly Rivers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20년 1월 6일

분량 : 366 페이지

장르 : 모험/시리즈 예정



#### \* 한 발명가 소녀가 미지의 힘과 마주하며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이야기

할머니와 함께 오두막에서 살고 있는 드메즐라는 결코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다. 드메즐라는 겨우 열두 살 밖에 안되었지만 네 살 때부터 발명을 시작한 발명 전문가였다. 드메즐라는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밤에도 몰래 실험을 하다가 매번 할머니에게 혼이 나곤 했다. 일명 괴짜인 드메즐라에겐 사실 학교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드메즐라에겐 자기장 이론이니 원자 에너지니 하는 심오한 과학적 지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마땅히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드메즐라와 가장 잘 통하는 친구는 심각한 알려지 때문에 음식 대신 약을 먹어야 했고 외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갇혀있는 파시뿐이었다. 하지만 밤마다 각종 실험에다 로봇까지 만드느라 정신이 없는 드메즐라는 외로울 겨를조차 없었다.

평소처럼 실험을 마치고 잠이 든 드메즐라는 잠결에 어디선가 들어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지붕 위에 부엉이가 내는 소리겠거니 하고 이불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그녀가 다시 이불 밖으로 머리를 내밀자 그 소리는 이제 온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 소리의 원인을 판단해보기 위해 한참 머리를 굴려봤지만 그 소리는 오두막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 정도로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드메즐라는 자기 방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드메즐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낯선 정체를 향해 누구인지 모습을 드러내라고 소리치며 전등을 사방으로 흔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드메즐라의 몸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경련이 계속 되었다. 드메즐라는 애타게 할머니를 불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방 안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소리만 가득했다. 다음날 드메즐라는 온 몸에 퍼진 미세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다. 일어난 지 한참 후에야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기억해낸 드메즐라는 할머니가 관찮은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 층으로 내려갔다. 다행히도 할머니는 무사했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어제 일어났던 이상한 소리와 낯선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지 못하는 눈치였다. 할머니는 모든 것이 그저 환상이거나 드메즐라가 밤마다 실험을 하는 바람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라고 나무랐다. 하지만 드메즐라의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의 반응은 사실 좀 이상해 보였다.

드메즐라는 지난 밤 일을 털어놓을 사람을 찾다가 유일한 친구 퍼시의 집으로 갔다. 퍼시는 여전히 집 밖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 갇혀 있는 신세였다. 드메즐라는 퍼시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둘은 드메즐라의 방에서 때를 기다렸다가 그 정체 불명의 존재를 함께 잡기로 했다. 퍼시가 집에서 몰래 빠져 나와 드메즐라의 방까지 찾아 온 날 퍼시는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드메즐라의 할머니의 온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드메즐라와 퍼시는 서둘러 온실로 갔지만 그 곳에는 이미 아무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가 늘 양배추를 심는 자리에 작은 문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문에는 해골 그림을 비롯한 달, 별 등의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드메즐라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그 문양들을 천천히 쓰다듬어 보았다. 문양들은 마치 살아 있는 동물의 피부처럼 따듯했다. 드메즐라는 용기를 내 문 손잡이를 돌렸고 동시에 엄청난 열기가 느껴져 손 바닥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겁에 질린 퍼시가 드메즐라를 말리려 했지만 드메즐라는 과감히 그 문을 열고 아래로 걸어 내려갔다. 그 아래에는 마치 동굴 같은 방 하나가 있었다. 방안에는 해양 생물 샘플들이 담긴 작은 항아리와 책들로 가득했고 구리를 녹일 때 쓰는 도가니와 그 주위를 둘러싼 사람의 뼈들이 있었다. 드메즐라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방 뒤쪽의 식료품 저장실에서 나타난 한 형체를 보게 되었다. 촛불 아래, 해골 모양의 황금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정체는 드메즐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얼굴은 비록 가면에 가려져 있었지만 긴 회색 머리와 주름진 손을 가진 그 사람은 바로 드메즐라의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대며 무언가를 팔팔 끓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는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항아리에 담가 둔 이상한 생명체와 까마귀 깃털 같은 것을 끓는 물에 넣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국자를 저어가며 드메즐라가 단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주문을 외웠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의 몸에서 영혼을 불러내는 주문이었다. 할머니는 드메즐라 눈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드메즐라는 지난 밤 들었던 이상한 소리가 할머니와 관련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메즐라는 마침내 할머니가 '영혼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드메즐라의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내 그들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드메즐라의 할머니는 괴한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고 드메즐라는 이 사건이 분명 할머니가 가진 능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 하게 된다. 드메즐라는 과연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해결하고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 과학과 미지의 심령술이 만나 벌어지는 오싹하고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홀리 리버스 (Holly Rivers)는 영국 브라이튼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극과 수공예를 가르치며 여자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제목 : THE MIDNIGHT GUARDIANS

가제 : 한밤의 기사들

저자 : Ross Montgomery

출판사: Walker Books

발행일: 2020년 가을 예정

분량 : 263 페이지

장르 : 판타지



**\* 전쟁 보다 더 무서운 암흑 세계와 맞서는 소년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1940년 12월 10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콜은 영국에서 그나마 안전한 편에 속한다는 벅스턴에 와 있었다. 하지만 콜은 고향 런던을 떠나 잘 알지도 못하는 클레어 고모와 이곳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만 했다. 유일한 희망은 누나 로즈가 하루 빨리 이곳에 찾아오는 것뿐이었다. 콜은 누나가 도착했는지 확인 하려고 서둘러 고모 집으로 달려 갔다. 하지만 고모의 집 앞에는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런던 집 옆집에 살고 있던 에반스 부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모두들 괴짜 혹은 정신 나간 여자라고 부르던 사람이었다. 콜은 누나를 곧 만난다는 생각에 들뜬 나머지 원래 비밀로 하기로 했던 누나의 방문에 대해 에반스 부인에게 다 떠벌리고 말았다. 콜은 크리스마스에 누나와 함께 아빠와 고모가 자란 ‘다크웰 엔드 오두막’에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고모와 누나는 벅스턴 사람들이 다 알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콜은 과연 이 계획을 실행 할 수 있을지 내심 불안했다. 콜이 에반스 부인을 집안으로 안내하려고 하자 에반스 부인은 이상한 왕과 그린맨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소금을 먼저 집 주변에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 왕은 자신의 왕국에서 그린맨을 쫓아냈고 그린맨을 찾아내기 위해 이 마을 까지 요정들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에반스 부인은 콜에게 겨울 왕이 보낸 스파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라는 알쏭달쏭한 말도 했다. 콜은 에반스 부인이 그냥 지어낸 말들을 늘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콜은 에반스 부인을 뒤로 하고 누나를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고모 네 집 문을 열었다. 하지만 어두 캄캄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통명한 고모의 잔소리뿐 누나의 모습은 그 어디 에도 보이지 않았다. 콜은 화살처럼 잔소리를 쏘아대는 고모의 앞을 가로막고 누나가 오늘 이곳 으로 오기로 했고 누나를 마중하러 기차역에 가겠다고 말했다. 콜의 예상과는 달리 고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고모는 그저 콜에게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편지는 콜의 누나가 보낸 것이었다. 편지에서 누나는 콜에게 지금 런던 상황이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데다 이제는 밤에만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낮에는 간호병동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돕고 있다고 했다. 결국 콜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누나와 보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때 갑자기 콜의 머릿속에는 콜의 상상 속 친구들이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다크웰 엔드 오두막에서 콜을 기다리고 있다며 모두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하루 빨리 오두

막으로 돌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꿀은 곧 폭풍이 닥친 다는 소식도 무시한채 홀로 어둠을 뚫고 몰래 기차에 올라탔다.

오두막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꿀은 오두막에 와 봤자 별 달라질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단 하루라도 집처럼 느껴지는 곳에 있고 싶었다. 오두막에 가까이 다가가자 꿀의 상상 속 친구들이 다시 꿀을 부르고 있었다. 부끄러움이 많은 꿀은 현실 세계의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상상 속 친구들이 꿀의 유일한 친구들이 되었다. 그 중 첫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몸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우아한 호랑이인 ‘펜들버리’였고 두 번째 친구는 뛰어난 후각으로 어떤 적이든 추적할 수 있고 깊이깊이 감춰진 보물까지 귀신 같이 찾아내는 오소리인 다정하고 젼들한 ‘미스터 녹스’였다. 그리고 마지막은 ‘로그의 왕’이라는 별칭을 가진 용감하고 진중한 기사였다. 그는 꿀 보다도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십 마리의 용을 한 번에 무찌를 수 있을 만큼 용맹한 친구였다. 이들은 꿀이 외롭거나 무서울 때 꿀에게 찾아오는 꿀의 수호자들이기도 했다.

오두막에 도착한 꿀은 그곳에서 누나와 돌아가신 아빠, 자기를 낳자마자 오스트리아로 떠나버린 엄마를 떠올렸다. 꿀은 아빠마저 잃고 누나와 헤어져 벅스턴에 오면서 상상 속 친구들을 잊으려고 했다. 더 이상 그들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거라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계속해서 꿀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다. 그 순간 꿀은 너무 놀라 얼음처럼 몸이 굳어버렸다. 이번에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꿀의 머리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꿀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는 진짜 소리였던 것이다. 꿀은 오두막 저편, 천장에서 새어 나온 빛이 계단 꼭대기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 그 어딘가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꿀은 처음엔 모든 것이 자신의 상상인줄 알았다 하지만 빛이 새어 나오는 그 틈에는 정말로 그의 친구들이 있었다. 틈에서 빠져 나와 꿀의 앞에 선 세 친구들은 꿀이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상상 속의 존재들이 아니라 실제였다. 호랑이 펜들버리는 놀란 꿀을 진정 시킨 뒤 자신들은 정령의 세계에서 온 꿀의 수호자들이며 이 세상에 곧 위협이 다가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꿀에게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꿀이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곧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꿀은 에반스 부인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겨울의 왕은 정령의 세계를 어둠의 왕국으로 만들었고 그 어둠의 세력으로서 이 세계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중이었다. 게다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겨울 왕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꿀과 세 친구들은 독일계 유대인 난민 루스의 도움을 받아 전쟁 중인 영국 땅을 가로 질러 모험을 떠난다. 그 곳은 끊임없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격보다 더 무서운 힘을 가진 전설과 민속 신화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었다. 꿀과 세 친구들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겨울 왕과 맞서 싸우게 된다. 어두운 현실과 그보다 더 오싹한 판타지 세계가 섞인 흥미로운 모험담이다.

#### <저자 소개>

로스 몽고메리 (Ross Montgomery)는 돼지 농장에서 일한 후, 우체부 및 초등학교 교사도 일한 바 있다. 현재는 『Max And The Millions』 『Perigee & Me』 『The Tornado Chasers』 등의 아동 도서를 쓴 작가이다.